



04 공감 동화

흥부와 놀부

14 생활의 발견

폴리프로필렌과 식품용기

32 함께하는 풍경

초대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파주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 오픈

36 주요 경영활동

사랑의 송편 나누기

통권 제467호 발행일 2020년 10월 8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주)성환인쇄 02-2273-0583

안내 일부 기사*의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 <달리는 희망 주유소> <취미 연관 검색어> <가족 추억 공작소>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 동화

[나눔] 흥부와 놀부

06

고전 속 핵심가치

[정도] 단사표음
신념 있는 자족

IN 우리 안의 성장판

08

스포츠라이트

성장 돕는 겨루기
[스피드스케이팅과 발전적 경쟁]

10

읽고 듣는 오페라

<라 왈리>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

12

언제나 건강

갑갑한 나비넥타이
[갑상선 질환]

14

생활의 발견

힘 솟는 그릇
[폴리프로필렌과 식품용기]

16

이달의 활력평가

10월 탐구영역 [패션]

18

터벅터벅 소도시

[자동차 본고장]
독일 슈투트가르트

22

간이역 산책

오랜 역의 시간은 찬찬히 흐른다
[대구 고모역]

26

지식 한 뼘

메마른 땅 희망 물길
[머니 메이커 펌프]





표지 속 동화
흥부와 놀부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는 나눔과 탐욕의 대비되는 마음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웁니다. 주위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흔쾌히 양자리를 내어주는 나눔 실천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나눔의 미덕을 되새겨봅니다.
*관련기사 4쪽



10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코로나19 탈출 하이킹
책과 함께 집중휴가

39
단신
지식플러스 내 'Safety Talk' 게시판 운영
울산복지재단 추석맞이 백미 기탁

32
함께하는 풍경
초대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파주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 오픈
군산저유소 특성화고교생 자립 지원
인천저유소 주택용소방시설 기증

40
임직원 동정

36
주요 경영활동
사랑의 송편 나누기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보조기구 전달
CEO·울산공장 팀리더 간담회

41
팝업 정보창
화재 예방·대응

42
독자마당



22



36



39

32





공감 동화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범 기업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공동체들과 우리의 성공을 나눕니다.

제10화 [나눔]

함께 맞이하 는 복

흥부와 놀부

글. 이일야<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저자

흥부와 놀부의 교훈은 친숙하다.
사람들은 벌 받는 놀부 이야기에
통쾌함을 느끼면서 형제의
행복한 결말을 흐뭇해한다.
누구나 베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나눔(Sharing)의
미덕을 생각한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는 신명 나는 대목과 반복되는 구절이 인상 깊은 판소리계 대표소설이다. 원류는 신라시대 배경의 방이설화에 기원한다는 설부터 여러 갈래다. 이본(異本) 중 최고본(最古本)으로 꼽혀왔던 <흥보전>은 하버드대 도서관 소장본이다. 이 가운데 2017년에 흥부전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1833)으로 추정되는 <흥보만보록>이 발견됐다. <흥보전>보다 수십 년 앞선다. 새로 발견된 필사본에는 흥부와 놀부가 평양 사람이며 각각 데릴사위로 처가에 얹혀 살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이야기와 사뭇 다르지만 처가의 돈을 보태 친부모를 봉양한 흥부의 착한 심성은 변함없다.

<흥부와 놀부>는 1967년 상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형 애니메이션(스톱 모션)이기도 하다. 아동극임에도 당시 최우수문화영화상과 제5회 청룡영화상 비(非)극영화작품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흥부놀부>를 비롯한 우리 이야기가 과테말라 초·중등 국정·민간 교과서 23종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서사의 저력이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범 기업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공동체들과 우리의 성공을 나눕니다.

나눔이 더하는 풍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만났을 당시 흥부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다. 거뒤틀어 할 식솔이 줄줄이 끼니를 거르는 형편이다. 형님 부부마저 문전 박대를 한다. 그 설움으로 흥부의 심신은 만신창이가 됐다. 때마침 나타난 제비를 가여워 할 여유조차 없음이 당연한데 흥부는 제비에게 오히려 동병상련을 느낀다.

제비를 기필코 살려내겠다는 대목에서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궁핍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는 고운 마음만은 흥부에게 차고 넘쳤다. 집안 곳간은 비었을지언정 마음은 나눔의 덕으로 가득했다. 덕이 흘러넘치듯 큰 박에서 보물들이 쏟아진다. 자신보다 더 낮은 곳을 돌아볼 줄 아는 흥부의 마음이 금은보화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선한 마음은 깊이와 너비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창고와 같다.



“네 경색이 가궁하니
기어이 살리리라.”

<홍보만보록>* 중에서

* 흥부전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서 최근 원문을 현대어로 옮긴 단행본 <홍보만보록>(김동욱 옮김·문학동네·2020)이 발간됐다.



모두가 주연인 삶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죄를 짓는다. 그 대가는 참담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삶의 무대에 모두가 주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독차지한 무대 뒤는 쓸쓸한 퇴장만이 기다린다.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눌 때 인생이란 작품이 빛난다. 형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잘 살자고 제안한 흥부의 가르침이다. 어우러지는 삶을 선택한 흥부는 결코 가난해질 일이 없다. 🌻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부단히 나아갑니다. 사자성어에 얽힌 고전 이야기 속에서 핵심가치를 생각합니다.

簞食瓢飲

신념 있는 자족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핵심가치
[정도] 편

— 분수와 과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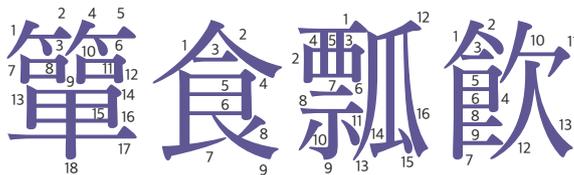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개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잔칫집에서 고기 한 덩어리를 얻고는 다른 개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기를 문 채 다른 곳으로 갔다. 냇가 위의 다리를 건너게 된 개는 문득 냇물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또 다른 개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인줄도 모르고 상대의 고기를 빼앗아야겠다는 욕심으로 크게 짖었다. 순간 물고 있던 고기가 냇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자신이 가진 고기는 생각지 못하고 노력을 뛰어넘어 욕심으로 다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조금만 더'라는 욕심만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이미 갖고 있는 것조차 놓친다. 분수(分數)는 자신의 처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다. 분수가 지나치면 과분(過分)한 것이 된다. 과분으로 내달리지 않고 바르다 여기는 방식을 기꺼이 선택하는 태도가 정도를 걷는 지혜다.



단사표음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簞

소쿠리 단

- 1. 소쿠리 2. 밥그릇

食

먹이사

- 1. 밥 2. 음식

瓢

바가지 표

- 1. 바가지 2. 표주박

飲

마실 음

- 1. 마시다 2. 호흡하다

— 바른 길의 충만함

공자에게는 3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공자는 맑은 정신을 지닌 안회를 가장 아꼈다. 그는 너무 가난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어느 날 안회의 모습을 지켜보던 공자가 말했다.



“어질구나, 안회야.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면서 누추한 곳에 살면

보통 사람은 근심하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너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니 참으로 어질구나!”

이후 단사표음(簞食瓢飮)은 스스로 택한 올바른 삶의 방식 안에서 즐겁게 사는 청빈하고 소박한 태도를 뜻하게 됐다.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삶을 바라보는 안회의 태도는 우리에게 자족의 깊은 뜻을 일깨운다. 자족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른 길을 선택해 묵묵히 걸어가는 긍정의 태도다. 바라는 것이 채워져야만 기뻐하는 것이 만족이라면 상황을 긍정하며 마음을 울곧게 다지는 태도가 자족이다.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규칙을 쉬어 거기고 욕망에 떠밀려가는 우를 범하기 쉽다. 절차를 존중하고 신념 있게 선택한 길을 긍정하며 정도를 걷는다면 진정한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

핵심가치 [정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簞食瓢飮

簞食瓢飮

簞食瓢飮

簞食瓢飮

簞食瓢飮

簞食瓢飮



성장 돕는 겨루기

경쟁 속에서 결과에만 연연하면 중요한 교훈을 놓친다. 승자로서 품격과 패자의 진심 어린 축하가 엮인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일화로 발전적 경쟁의 의미를 짚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발전적 경쟁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그때 그 경기!

속도와 반비례하는 배려의 여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위로 결승점을 통과한 직후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때 한 선수가 빙판에 등장해 그녀를 꼭 안으며 다독였다. 뜻밖에도 이상화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고다이 라나오 선수였다. 그녀는 이상화 선수에게 다가가 서툰 영어로 존경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말에 이상화 선수도 화답했다. “나는 500m 경기만 뛰었는데 당신은 1,000m와 1,500m도 뛰었잖아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선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스포츠맨십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고다이 라나오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경기 다음 순서로 이상화 선수가 출전하자 일본 관중들에게 ‘샷’ 동작으로 정숙을 부탁한 일화도 유명하다.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달리 두 선수가 보여준 우정에는 진솔한 배려가 묻어났다.



스포츠 잡학사전

스포츠 속 불문율, 스포츠맨십

승패와 상관없이 매너 있는 경기를 펼친 선수를 향해 스포츠맨십이 뛰어나다고 표현한다. 체육학 사전에서는 스포츠맨십에 대해 '선수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라고 정의한다. 스포츠맨십을 가진 선수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방에 예의를 지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덧붙인다.

스포츠 종목 중에는 아예 스포츠맨십을 경기 상황에 녹이는 경우도 있다. 축구에서는 팀을 옮긴 뒤 친정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골프 경기에서는 마지막 홀에서 1위가 확실시되는 선수가 마지막 퍼트를 할 수 있도록 하위권 선수들이 먼저 홀 아웃(홀에 공을 넣음으로써 해당 홀의 플레이가 종료되는 것)을 하며 경기를 마쳐준다. 1위 선수가 우승 세리머니를 만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포츠맨십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필요한 발전적 경쟁의 요소다. 승자는 겸손을, 패자는 긍정적 동기부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조직 속 플레이

발전 이끄는 믿음 속 경쟁

조직과 사회 또한 경쟁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성장한다. 단, 경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발전과 퇴보가 결정된다. 발전적 경쟁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믿음이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믿음도 포함된다. 상대도 나와 같은 목표를 향해 공정하게 경쟁을 치른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경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 얻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가 끝난 뒤 양 팀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악수를 나누며 때로는 옷을 바꿔 입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내 경쟁이 스포츠와 다른 점은 아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분명한 결과를 내야 하는 초 다툼의 싸움이 아닌 이상, 덕 있는 경쟁은 배움을 남기고 모두의 발전을 이끌어낸다. 🌟



모바일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 알리>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알리

잘 있거라, 고향 집이여
여기서 멀리 떠나갑니다.
마치 경건한 종소리가
저 흰 눈 사이로 흘러가듯이
저 금빛 구름사이로 흘러가듯이
하나 그 희망도
아쉽고 괴롭습니다.

오 어머니의 즐거운 집에서
알리는 아득히 멀리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고 아마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결코, 결코 없을 겁니다.

여기서 홀로 멀리 떠나갑니다.
마치 경건한 종소리가
저 흰 눈 사이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홀로 멀리 떠나갑니다.
저 금빛 구름 사이로 흘러가듯이.
발이 움직이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길이 멀어도 가겠습니다.

#Wally

Ebben? Ne andrò lontana,
Come va l'eco della pia campana,
Là, fra la neve bianca;
Là, fra le nubi d'ôr;
Laddóve la speranza, la speranza
È rimpianto, è rimpianto, è dolor!

O della madre mia casa Gioconda,
La Wally ne andrà da te, da te
Lontana assai, e forse a te,
E forse a te, non farà mai più ritorno,
Nè più la rivedrai!
Mai più, mai più!

Ne andrò sola e lontana,
Come l'eco è della pia campana,
Là, fra la neve bianca;
Ne andrò, ne andrò



알프레도 카탈라니
(1854~1893)
이탈리아 작곡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해 밀라노 음악원에서 음악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후 새로운 오페라 스타일보다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며 여러 작품을 남겼다. 이탈리아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와 서로 교우하던 사이로, 밀라노 음악원 선후배이자 동향 출신이다. 대표작은 <로렐라이>, <엘다>, <테자니스>, <라 알리> 등이다.

<라 왈리> 작품 속으로

알프스 티롤 지역의 호슈토후 마을 광장에서 70세 생일을 맞은 지주 슈트로밍거의 파티가 한창이다. 이때 슈트로밍거와 사이가 좋지 않은 하겐바흐의 아들인 주세페 하겐바흐가 불청객으로 등장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슈트로밍거와 주세페 하겐바흐는 말다툼을 벌이고, 왈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세페의 편을 든다. 얼마 뒤 슈트로밍거가 죽고, 왈리는 주세페의 마을로 찾아가지만 그가 곧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왈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세페에게 모욕적인 키스를 받는다. 왈리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다 결국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한다. 비극처럼 두 연인을 향해 알프스의 눈사태가 시작되고 눈에 파묻혀 주세페가 죽자, 왈리도 절벽으로 뛰어내린다.

불공정 계약 작품이 결작으로

#1

카탈라니의 다섯 번째 오페라이자 유작으로 남은 작품 <라 왈리>는 총 4막(약 2시간)으로 구성된다. 독특하게 불공정한 구두 계약을 통해 탄생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악보 출판사이자 공연기획사였던 리코르디 사는 카탈라니에게 계약서 한 장 써 주지 않은 채 작품을 의뢰했다. 이것이 카탈라니의 결정적 실수였다. 심혈을 기울여 <라 왈리>를 만들었지만, 결국 리코르디 사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892년 1월 20일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라 왈리> 초연 뒤 60회 공연을 다 채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카탈라니의 일화가 전해지는 이 오페라는 독일 여배우이자 작가였던 빌헬미네 폰 힐레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다. 음악적으로 이 작품은 이탈리아 베리스모 오페라와 낭만주의 사이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눈사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주세페와 왈리의 장면을 무대에서 선보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주 공연되지 못한다.

진실한 사랑 찾아 떠난 여정

#2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스카필리아투라 밀라네제 (Scapigliatura Milanese)

1860년대 이탈리아 밀라노 예술계에 불었던 젊은 혁명을 뜻한다.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는 사실주의인 베리스모 양식으로 넘어간다.

발레(Ballet)

과거 프랑스에서 공연되는 모든 오페라는 반드시 발레를 포함해야 했다. 때문에 이탈리아나 독일 작곡가의 오페라가 프랑스에서 공연될 때는 종종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발레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서라도 사랑을 찾아가겠다는 주인공 왈리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아리아다. 카탈라니가 작곡한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다. 영화 <디바>, <싱글맨> 등에 수록되며 장면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한 몫 했다. 세계적인 지휘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토스카니니가 자신의 딸 이름을 왈리라고 지은 것은 이 오페라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 중 하나다. 강인한 여성상인 왈리의 이름을 선물 받은 토스카니니의 딸은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호로비츠의 아내가 됐다.

왈리 역은 소프라노, 슈트로밍거 역은 베이스, 겔러 역은 바리톤, 주세페 하겐바흐 역은 테너, 아프라 역은 메조소프라노가 맡는다.

티롤 지방 사냥꾼들의 춤곡과 요들송 등 알프스의 지역색이 가미된 음악은 흥겹다. 무대 의상 또한 티롤 지방의 화려한 민속 의상을 재연해 보는 즐거움까지 각별하다. 🌟





언제나 건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갑갑한 나비넥타이

갑상선 질환

목 전면에 나비 모양으로 기도를 감싸는 갑상선은 자율신경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해마다 갑상선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반하면 몇 악성종양을 제외하고 완치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예방과 검진은 필수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10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질환

11월
고혈압

12월
만성
신장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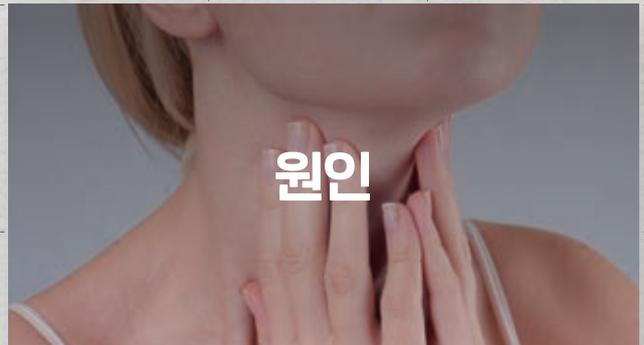
정의

신진대사의 중심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선이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낸다.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양에 따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결절, 암 등 질환으로 나타난다.

여성 발병률 남성의 약 5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18)에 따르면 갑상선 질환자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갑상선 질환자는 남성보다 약 5배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28.6%) > 60대(24.3%) > 40대(18.6%) 순이다.



원인

불규칙한 생활습관·면역력 저하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한 질환이 원인이 돼 문제가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수면 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갑상선 O·X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Δ)

질환에 따라 다르다. 주기적인 갑상선 호르몬 검사 결과를 통해 약 용량과 기간을 조절한다.

수술 뒤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X)

수술 시 쉼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회복이 가능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특징

대사량 증가로 인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땀이 잘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20~50세 여성에 주로 발생한다.

자가체크

- 눈꺼풀이 부으며 눈이 떨림
- 무리하지 않아도 땀이 많이 남
- 심한 피로감을 느낌
- 맥박·심장이 빨리 뛰
- 안구가 돌출됨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징

대사량 감소에 따라 동작이 느려지거나 추위를 타고 체중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뉜다. 초기에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자가체크

- 쉼 목소리가 나고 말이 느려짐
- 피부가 누르고 거칠어짐
- 건망증이 심해짐
- 손발 저림이 심하고 근육통 발생
- 얼굴·손발이 자주 부음



갑상선 결절 & 갑상선암

특징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에 생긴 혹이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쉼 목소리, 음식 섭취 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초음파나 혈액검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자가체크

- 목소리 변화
- 지속적인 피로감
- 호흡 곤란·음식 섭취 장애
- 목 앞 부분에 크고 딱딱한 멍울이 만져짐
- 체중 급감 또는 급증



진단 & 예방

진단

- ▷ 초음파 검사: 결절 크기와 모양·경계·음영·내부구성물·림프절 등을 정밀 검사
- ▷ 결절 진단: 일반적으로 크기가 1cm 이상인 결절은 암 위험이 있어 조직검사 시행

갑상선에 좋은 음식

- ▷ 해초류: 갑상선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
- ▷ 복숭아: 과육의 풍부한 수분이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며 땀의 분비 조절
- ▷ 토마토: 항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갑상선암 예방에 도움



힘 솟는 그릇

폴리프로필렌과 식품용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용기의 활용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식재료와 열기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재질이 중요하다. 강한 내열성을 갖추고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폴리프로필렌 용기가 등장하기까지 식품용기를 둘러싼 다양한 변천을 살펴본다.



폴리프로필렌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우수해 의자, 카페트, 식기 등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항균 기능까지 갖췄다. 강한 내열성으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담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다.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 √ 환경호르몬 비검출·뛰어난 내열성·내수성
- √ 식품용기·젯병·주사기 등 의료 기구와 약품용기의 주재료
- √ 우리회사 연산 40만5천 톤 생산



분리배출표시

플라스틱 포장재에 표시된 마크는 총 7가지로 나뉜다. 화살표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1988년 미국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지정한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고봉밥

묵직한 700ml 한 끼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생활이 기록된 <쇄미록(瑣尾錄)>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높이 9cm, 지름 약 13cm 크기의 밥그릇을 사용했다. 묵직한 유기나 사기에 담은 일명 고봉밥은 현대인에게는 세 끼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196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지면서 스테인리스강 소재 축소된 용량의 밥그릇이 등장했다. 지금은 가정에서 거의 쓰이지 않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식당에서 주로 사용된다.



효종갱

옹기에 담은 조선시대 배달음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우리 민족의 밥 사랑은 조선시대 최초의 배달음식 '효종갱'을 탄생시켰다. 경기도 광주의 명물음식으로 된장 풀은 물에 배추, 버섯, 고기, 해산물을 넣어 푹 끓인 해장국이다.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종이가 올리는 새벽녘 사대문 안으로 배달됐다. 1925년 편찬된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국 향아리가 그때까지 따뜻해서 해장에 더없이 좋다'고 기록돼 있다. 비결은 옹기다. 음식을 담은 옹기를 솜이나 한지로 싸 보온 효과를 더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용기 속 석유화학'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용기

비교우위의 안전성

폴리프로필렌은 내열성이 높아 뜨거운 음식을 담은 포장용기로 적합하고 활용도도 폭넓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 용기에서 비스페놀류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나뉘나·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검출 또는 배출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아기 젖병 소재로 사용될 만큼 안전하다. 🌱



즉석밥

3분 집밥의 완성. 폴리프로필렌

방부제나 식품첨가물 없이 언제 어디서든 3분 내로 갓 지은 밥을 섭취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외부 충격과 산소차단에 강한 폴리프로필렌 용기가 큰 몫을 차지한다. 1996년 비상식량으로 출시된 즉석밥은 2000년대에 들어 일상식으로 인식되며 현대인의 간편한 집밥 대명사로 급부상했다. 전자레인지 조리에 적합한 폴리프로필렌 용기는 가열하는 동안 파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 용기 아래 원형의 모양은 전자레인지 열이 효율적으로 고르게 달게 위함이다.



철가방

배달 붐물 터트린 일회용 식기

우리나라 배달음식 산업은 중화요리를 통해 본격화했다. 1980년대 말 한 코미디언의 유행어로 인기몰이한 '철가방'은 배달문화의 성장을 입증한다. 도자기 그릇 역시 철가방 문화와 함께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신속 배달 시대가 열렸다. 배달음식 또는 편의점 간편식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 효자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일회용 식기가 등장했다.





10월

탐구영역 [패션]

역사

1. 옷을 제단하고 꿰매어 정교하게 만들어 입은 최초의 민족은?

- ① 그리스인 ② 이집트인
- ③ 수메르인 ④ 페르시아인

2. 동절기 코트나 재킷에 쓰이는 원단으로 청어의 뼈 모양과 흡사해 이름 붙여진 이것은?



- ① 트weed ② 코듀로이
- ③ 모직 ④ 헤링본

3. 여성용 바지 정장을 최초로 도입한 디자이너를 고르시오.

- ① 크리스찬 디올
- ② 이브 생 로랑
- ③ 가브리엘 코코 샤넬
- ④ 루이 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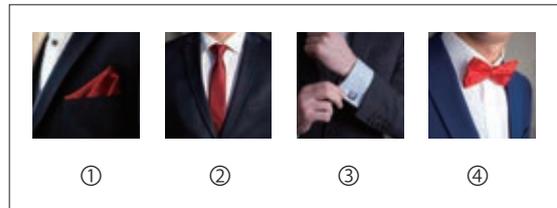
4. 군복에서 유래된 의상이 아닌 것은?



- ① 트렌치코트 ② 무스탕 ③ 카디건 ④ 청바지

문화

5. 전략적으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패션 액세서리를 고르시오.



- ① 행커치프 ② 파워 타이
- ③ 커프 링크스 ④ 보타이

6. 패션 관련 용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 ① 비건 패션 ② 퍼 프리 운동
- ③ 꾸안꾸 ④ 예코 퍼

7. 최근 패션계 이슈로 떠오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일환으로서 의류, 가방, 신발 소재로 각광받는 것은?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 생산·소비과정에서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지속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① 유리 ② 페트병
- ③ 나무 ④ 알루미늄

8. 영화 속 투명망토를 실현시키는 차세대 물질로 꼽히는 이것은?

- ① 메타물질 ② 라이크라
- ③ 리오셀 ④ 탄소섬유

정답·해설

1. ④ 페르시아인

*자료 : <세계 패션사> 매취 가랜드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패션은 한 장의 천이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룬 수메르인들은 정교한 옷을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천을 몸에 걸치는가가 중요했다. 옷을 재단해 꿰매어 만든 최초의 민족은 페르시아인이다.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바지와 팔을 집어넣는 소매 달린 재킷을 만들었다.

2. ④ 헤링본

*자료 : 두산백과

물고기 청어의 뼈 모양을 닮은 조직으로 반복적인 V자 모양이 되게 짜 맞춘 직물이다.

- ① 트위드 : 굵은 양모로 거친 감촉을 나타낸 모직물
- ② 코듀로이 : 곱이 지게 짠 직물
- ③ 모직 : 양모로 제작한 직물

3. ② 이브 생 로랑

*자료 : 두산백과

최초의 여성용 바지를 만든 코코 샤넬과 함께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다. 이브 생 로랑은 남성 턱시도를 모티프로 한 여성 바지 정장 세트를 처음 도입해 선보였다.

4. ④ 청바지

*자료 : <옷장 속의 세계사> 이영숙

19세기 미국에 살던 유대계 독일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질긴 텐트용 천으로 광부들의 작업복을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

- ① 트렌치코트 : 방어 설비를 뜻하는 트렌치(trench)와 외투를 의미하는 코트(coat)를 합친 말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전투용 방수코트에서 유래
- ② 무스탕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전투기(머스탱) 조종사들의 방한용 가죽재킷에서 유래
- ③ 카디건 : 1850년대 크림전쟁에 참전한 영국 백작의 이름에서 따온 의상

5. ② 파워 타이

*자료 :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시부야 쇼조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세를 겨루는 자리에서 붉은 넥타이를 착용해 상대를 압도한 데서 파워 타이(power tie)란 별칭이 붙었다. 정치, 비즈니스 현장에서 넥타이 컬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6. ③ 꾸안꾸

*자료 : 시사상식사전

'꾸민 듯 안 꾸민다'는 의미의 축약어로 간결하고 단순한 스타일을 이르는 신조어다.

- ① 비건(vegan) 패션 : 가죽·모피·울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옷
- ② 퍼 프리(fur free) 운동 : 전 세계적으로도 모피 사용 중단을 독려하기 위해 펼치는 캠페인
- ④ 에코 퍼(eco fur) : 모피 대체 소재로서 가공 섬유로 만든 인조 털

7. ② 페트병

*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로 웨이스트는 낭비가 없다는 뜻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원사를 소재로 쓴다. 버려진 페트병 4개면 남성 셔츠 한 벌을 제작할 수 있다.

8. ① 메타물질

*자료 : 국방홍보원

투명망토는 빛이 특정 물체를 돌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원리로 구현된다. 메타물질(metamaterial)은 물질을 넘어섰다는 의미로 자연계 없는 성질의 인공물질을 일컫는다. 

- ② 라이크라 : 우레탄 섬유로 신축성과 착용감이 좋아 스포츠 의류에 활용
- ③ 리오셀 :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섬유로 우수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
- ④ 탄소섬유 : 내열성과 탄성률이 높아 항공기 부품, 단열재, 골프채, 낚싯대 재료로 활용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 이동시간** 인천~프랑크푸르트(비행기 약 11시간 30분)
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기차 2시간 5분 내외)
-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느림
- 화폐** 유로(1유로 ≈ 한화 1,400원)
- 교통수단** S-Bahn (교외선), 도보

프랑크푸르트에서 떠나는 슈투트가르트 여행

프랑크푸르트 중앙역(Frankfurt Hbf)에서 슈투트가르트 방면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슈투트가르트 중앙역(Stuttgart Hbf)에서 내린다. 독일 고속철도인 이체(ICE)를 타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다. 중앙역에 도착하면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큰 길인 쾨니히 거리를 따라 바로 도심이 펼쳐진다. 시내 주요 볼거리는 도보로 둘러봐도 충분하다. 도시 외곽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과 포르쉐 박물관에 갈 때는 교외선 기차인 에스반(S-Bahn)을 이용한다.



네 바퀴 품은

소도시

[자동차 본고장]
독일 슈투트가르트

글. 홍수연(여행작가)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마니아라면 세계적인 명차의 요람으로 먼저 떠올리는 도시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여행자들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박물관 등이 자리한 슈투트가르트를 독일여행 리스트에 반드시 올린다. 발레리나 강수진이 30년 동안 수석 무용수로 활동한 덕에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세계적인 명차의
본고장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행정 중심지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 중 하나다.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곳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지역의 중심지였고 10세기에 리우돌프 슈바비아 공작이 군마용 증마농장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현재 도시의 상징인 검은 말이 비롯됐다.

전동공구로 유명한 보쉬(Bosch)등 유명한 회사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된 것은 1887년 카를 벤츠가 내연기관을 발명한 데서 시작한다. 그 뒤 엔지니어인 고틀리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바흐가 슈투트가르트의 작은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이 꽃을 피웠다.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대표 자동차 기업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만 남은 독일이 다시 일어난 것에는 그들의 뛰어난 공업기술이 자동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이 크다. 이외에도 베엠베,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기술 강국 독일의 부흥을 앞에서 이끌었다. 최고의 재주가 '일 잘하는 것'이라는 이곳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안정 맞춤 업종이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박물관

이곳을 보러 슈투트가르트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필수 코스다.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어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다.

①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Mercedes-Benz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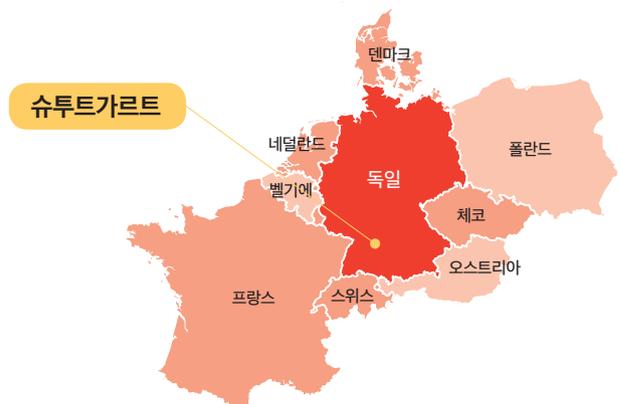
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충실한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왜 벤츠가 육지는 물론 하늘과 바다까지 지배한다고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초기 자동차부터 유명 인사들이 타던 차, 경주용차 등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홈페이지 www.mercedes-benz.com/en/classic/museum

② 포르쉐 박물관(Porsche Museum)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인 포르쉐의 여러 모델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벤츠 박물관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전시물이 있어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다. 전시 차들이 계속 교체돼 다시 방문해도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포르쉐 엠블럼에 들어가 있는 앞발을 든 검은 말은 슈투트가르트의 상징이기도 하다.

홈페이지 www.porsche.com/museum/en





코니히 거리(Königstraße)

중앙역 앞쪽으로 곧게 뻗은 거리로 슈투트가르트의 최대 변화가이자 보행자 전용도로다. 쾌적한 길 가운데에 큰 나무들 사이로 늘 사람들이 붐빈다. 주요 상점과 백화점, 레스토랑, 카페 등과 거리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어 언제나 활기차다.

궁전 광장(Schlossplatz)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기념탑이 인상적인 녹지로 넓고 푸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역사적인 건물인 구궁전 알테 솔로스(Alte Schloss)와 신궁전 노이 솔로스(Neue Schloss)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물인 신궁전은 이전에 왕이 머물던 성으로 현재는 정부 부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주립미술관(Staatgalerie Stuttgart)

현대 미술에 관심 있다면 둘러볼 만한 곳으로 건물 자체도 제임스 스틸링이 설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바우하우스 예술가 오스카 슈레머와 독일 표현주의 화가인 프란츠 마르크를 비롯해 피카소, 에곤 실레, 고갱, 몬드리안, 달리, 몽크, 모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멋진 미술관이다.

실러 광장(Schillerplatz)

주변에 슈투트가르트의 가장 큰 교회인 복음교회 슈티프트키르헤(Stiftskirche)와 고풍스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분위기 좋은 광장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있어 쉬어가기에도 좋다. 특정 요일에는 신선한 식재료를 파는 시장도 열려 더욱 북적인다. 광장의 동상은 시인이자 <빌헬름 텔>의 작가인 프리드리히 실러로, 그는 슈투트가르트가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출신이다. 🌻

독일 자동차 브랜드 엠블럼

브랜드의 정체성이 집약된 엠블럼은 많은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엠블럼도 그렇다.



메르세데스-벤츠 Mercedes-Benz

삼각별 모양의 엠블럼은 1890년 다임러 자동차의 창업자 다임러가 그의 아내에게 보낸엽서에 작은 별 하나를 그려넣고 ‘언젠가 이 별이 우리 자동차 공장 위에 찬란하게 솟을거요’라 적은 것에 기초한다. 각기 하늘과 땅, 바다의 탈것을 의미한다.



아우디 Audi

‘네 개의 링’으로 불리는 엠블럼은 자동차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오거스트 호르히로부터 유래한 아우디, 반더러, 호르히, 데카베 등의 네 회사가 합병 이후 각 브랜드를 한 개의 링으로 형상화해 서로 겹쳐놓은 것이다.



베엠베 BMW

프로펠러가 연상되는 엠블럼은 비행기 엔진 제조회사로 시작한 베엠베의 정체성을 담는다. 엠블럼의 흰색과 푸른색은 각각 알프스의 하얀 눈과 본사가 위치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주의 푸른 하늘을 상징한다.



오랜 역의 시간은 찬찬히 흐른다

대구 고모역

사진·글. 유지혜(홍보팀)



부산에서 서울 방면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전 고모역을 지난다. 대구를 오고간 많은 이들의 사연과 세월이 이곳에 살아 숨 쉰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 대구 철도의 변화 과정 속에서
고모역의 역사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역사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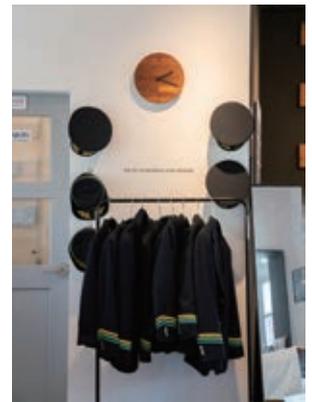


고모뮤지엄

I 고개 넘어 만나는 과거

과거 고모역에 가기 위해서는 고모령(顧母嶺)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다. 시대의 애환과 사연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1952년 문을 연 뒤 2006년 화물취급 중단을 끝으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18년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고모플랫폼 208'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역사 내부는 고모 뮤지엄으로 탈바꿈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이곳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전시공간으로 꾸몄다. 여느 간이역들과 달리 복합문화공간답게 다양한 체험 요소를 마련해 놓아 눈길을 끈다. 고모역을 소재로 한 그림 그리기, 1950~60년대 음악듣기 등 남녀노소 관람의 재미를 더하는 활동들이다.



▲ 역무원 제복과 모자를 착용해볼 수 있다. 역무원 복장을 한 뒤 고모역을 배경으로 촬영하며 가족, 친구, 연인과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다.



◀ 기차와 기차역을 함께 색칠하고 직접 그려보며 고모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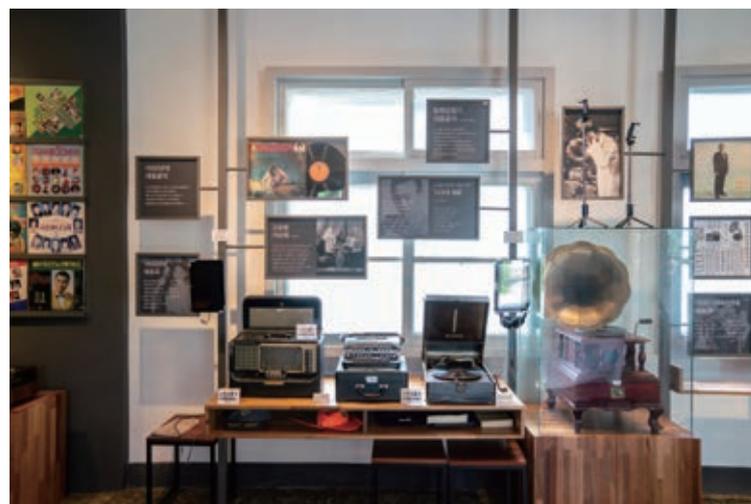


고모역과 관련된 음악, 영화, 악극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돼 있다.



고모역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과거 증기 기관차였을 당시 기차는 이곳에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제 징용으로 열차에 실려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든 어머니들로 고모역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해진다. 실제 고모(顧母)라는 역명을 한자로 풀면 '어머니가 돌아본다'는 뜻이다.

고모역에 깃든 시대의 한과 아픔은 다양한 예술 장르로 승화돼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1948년에 발표된 가수 현인이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이 대표적이다. 1969년에는 임권택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가수 현인이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랫말이 적혀 있다. 일제강점기에 징병이나 징용으로 멀리 떠나는 자식과 어머니의 이별 사연을 담은 노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아련하게 떠오르는 1950~60년대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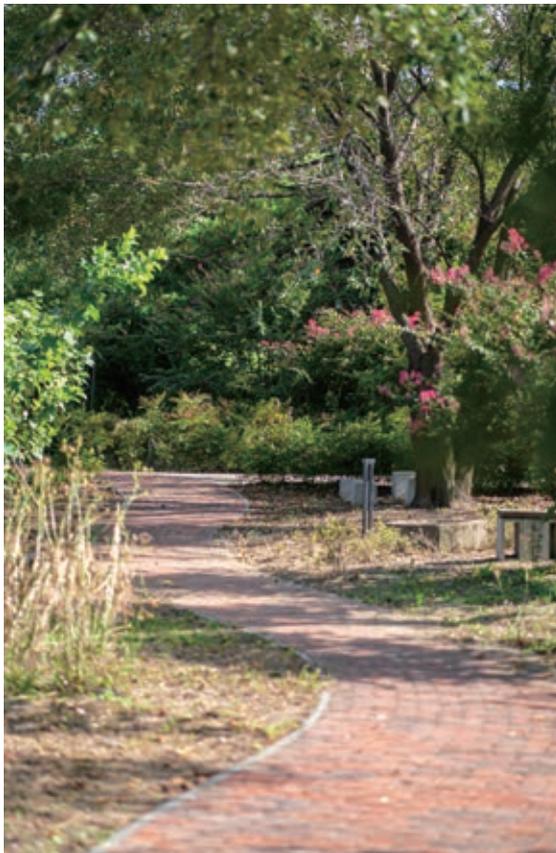


야외 산책로와 파빌리온

2 소리마저 정차한 작은 정원

고모역 대합실 관람 뒤 야외로 나오면 기차역의 추억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정원(메모리가든)과 산책로가 펼쳐진다. 풀숲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그늘막 아래에서 들리는 기차소리와 고즈넉한 풍경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고모 파빌리온(Pavilion, 정원 건축물)으로 이어진다. 위시콘(Wish cone)이라는 고깔 형태 원통 구조물 아래에서 있으면 기차소리와 함께 주변의 바람, 새소리를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작은 정원과 산책로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파빌리온' 모습이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어울림을 생동감 있게 채집할 수 있다.



▶ 고모역 앞에는 구상 시인의 <고모역> 시비가 세워져 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에스-오일 페이스북에서 인근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식 한 뼘

인류애가 낮은 따뜻한 과학에 주목합니다. 환경과 문화, 관습, 경제 등 글로벌 지역 여건을 배려한 적정기술을 들여다봅니다.

메마른 땅 희망 물길

여전히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
13억 인구가 분포한 아프리카 대륙이 대표적이다. 빈곤국 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후된 기술과 척박한 환경 극복이 시급하다.
머니 메이커 펌프는 메마른 대륙을 적시는 한줄기 희망이다.

머니 메이커 펌프

글. 김찬중(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저자)

휴대용 수동식 펌프 머니 메이커 펌프

손과 발의 힘으로 최대 7m 아래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적정기술 프로젝트

- ▶ 기존 16kg보다 경량화한 4.5kg의 하위 모델 출시
- ▶ 간단한 기계 원리로 제품 고장 시
주요 부품 사용자가 쉽게 수리

머니 메이커 펌프의 가치는?

☞ 효과

수익 창출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견인

☞ 기술

중력과 체중으로 작동시키는 단순한 기계 구성

☞ 보급

무상보급이 아닌 판매 또는 유상 대여·공유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투자 회수 개념 확립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기술로서
196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지역의 문화·관습·경제·환경에 적합한 간단한 기술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서
'적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보수·사용법이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7미터

희망 길어 올린 펌프

아프리카는 단지 4~6% 농지만이 관개수로를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된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기후 때문에 건기에는 물을 구하기 어렵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물을 구해야 했다.

엔지니어인 닉 문(Nick Moon)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출신 기계공학 박사 마틴 피셔(Martin Fisher)는 1991년 비영리단체인 킥스타트인터내셔널(KickStart International)을 설립하고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케냐의 관개시설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탄생한 혁신적 제품이 바로 페달을 밟으면 7m 깊이의 지하수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농사용 물 공급 장치인 '머니 메이커 펌프(Money Maker Pump)'다.



2천 평

족등식 펌프의 최대 효율

아프리카, 필리핀 등에서 채소 재배 농장에서 사용되는 물 이송장치로 지하수를 퍼 올려 채소밭에 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지하에서 퍼 올린 물을 넓은 지역으로 보내려면 전기를 사용하는 펌프가 필요하다. 전력이 없는 곳에서는 펌프를 가동할 수 없다. 이 장치는 기계 펌프 대신에 발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 올려 먼 거리에 있는 채소밭에 물을 공급한다. 2개의 발판(페달)과 실린더 2개가 장착돼 고무 밸브가 열고 닫히면서 물을 끌어올린다.

발을 사용해서 펌프의 페달을 밟으면 그 힘으로 지하의 물이 지상으로 올라간다. 이 펌프로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 올려 14m 정도 거리까지 공급할 수 있다.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나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다. 끌어 올린 물을 채소밭에 골고루 보내서 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이 펌프 하나로 하루 약 2천 평 농장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 견인

'머니 메이커 펌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장치를 사용해 채소농장을 경영해서 가구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머니 메이커를 무료 배포했을 당시 사용률은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판매 형태로 전환하자 농가의 사용 비율이 80%까지 높아졌다. 그만큼 농사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이다.

머니 메이커 펌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은 혁신적으로 향상됐다. 새로운 일자리 17만 개, 연간 수익 1천200억 원, 빈곤에서 벗어난 아프리카 인구 86만 명이라는 기록(2015년 기준)을 올렸다. 킥스타트는 펌프를 구매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을 형성했다. 가장 성공적인 적정기술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17만 일자리

33만 대

가계·지역경제·교육 개선

킥스타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케냐, 탄자니아, 말리, 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판매된 수량은 총 33만여 대에 달한다. 관개설비를 갖춘 가정들은 부수입을 자전거, 동력설비를 갖춘 펌프, 젃소, 집 그리고 토지와 같은 자산 구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로 인해 자녀들 수업료 지출이 용이해졌으며, 농장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수 또한 늘어났다.

기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소규모 자본금을 마련하면 킥스타트는 사업에 적합한 기술을 획득하도록 도와준다. 소규모 자작농 농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정의 소득증대를 도와 가난한 지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제2, 제3의 머니 메이커 펌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올빼미 나들이



코로나19 탈출 하이킹

글. 피준호(탈황1팀)

밤을 건너는 고요한 산책

지난 8월 6일부터 교대근무로 전환되면서 4조2교대로 새롭게 업무를 배워가는 중이다. 적응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흐르기가 지는 긴장과 피곤함을 감수해야 한다. 8월 29일 야간근무 마지막 날을 보내고 귀가해 피곤함에 지쳐 잠들었다. 점심까지 건너뛰고 저녁이 돼 서야 일어나 간단히 첫 식사를 마쳤다.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보다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야간 하이킹이 떠올랐다. 한밤중 인적 없는 한가로운 길을 조심스레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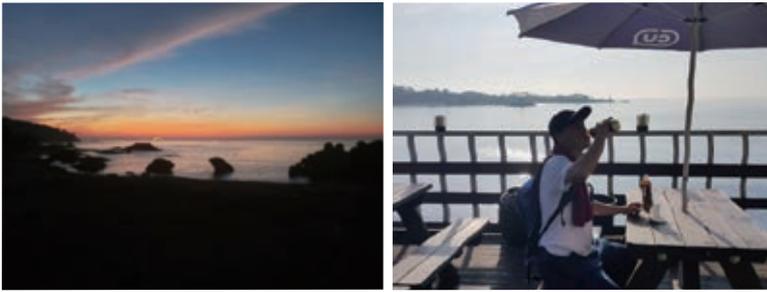
가방에 여분의 옷과 수건을 챙긴 뒤 아직 깨어있는 딸에게 진하해수욕장에 해 뜨는 것 보러 간다고 알렸다. 곤히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고 간단히 메시지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새벽 1시 즈음 아파트에서 출발해 문수축구경기장을 거쳐 구치소 길로 향했다. 덕하까지는 도보로 1시간 남짓이다. 길 곁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채소들 자라난 모습을 살피고, 한적한 도로도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1차 목표지점인 우리회사 정문을 향했다. 덕하를 지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가로등이 환하고 대로에 육중한 차량도 뽕뽕 달려 외롭지 않았다.

우리 공장 야경이 눈에 들어온 시각은 새벽 3시 40분쯤이다. 근무처인 탈황1팀이 정문으로부터 저 멀리 바라다보였다. 불현듯 동료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히 근무를 마치고 이곳에 섰음에도 그 시각 공장 곳곳에 자리하

고 있을 동료에게 미안한 심정이 드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시원한 음료라도 사서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업무 중 캔스레 폐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을 접었다. 대신 마음으로 응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4km쯤 이어지는 공단 길에 기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렸다. 그 소리에 섞여 어렴풋이 들리는 인기척이 동무마냥 반가웠다. 평소 보기 힘든 별빛도 눈에 들어왔다. 야간 하이킹만의 추억이자 즐거움이다. 취업 걱정이 아들도 생각나고, 새로운 분야로 입사 준비하는 딸도 생각났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도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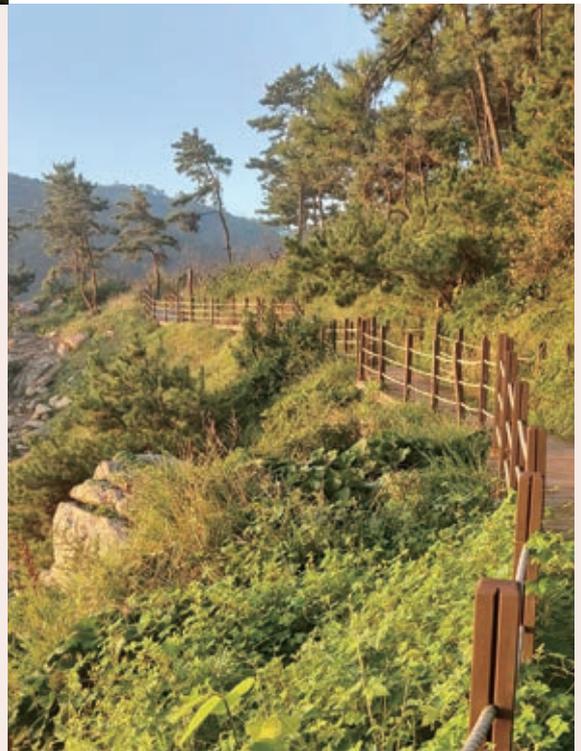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바다 절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편의점에 앉아 음료로 목을 적신 뒤 나란히 사진 한 컷을 남겼다. 이른 아침 햇살이 따가웠지만 장쾌한 동해바다가 모든 걸 잊게 했다. 오늘 길은 후배의 아내가 직접 운전해 집까지 편안히 돌아올 수 있었다. 하룻밤의 외출이었지만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하루 빨리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 한적한 밤이 아닌 낮에 동료들과 추억여행을 떠났으면 한다. 🌻



동료와 뜻밖의 만남

4시간 30분여 만에 강양 어촌에 도착했다. 예전에는 강양을 거쳐 진하까지 1.5km를 둘러 가야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다리가 연결돼 도보 1분이면 왕래할 수 있다. 진하로 이어진 다리 위에서 멋진 경치를 맞았다. 아침 일찍 바다에 나서는 어부의 고깃배도 카메라에 담았다. 진하해수욕장 앞에서 해 뜨는 시간을 검색하니 1시간여가 남았다. 지금껏 일출을 한 번도 촬영해보지 못했는데 반드시 담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섬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했다. 미리 염두에 둔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초점을 맞춘 상태로 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보된 시간에 이르자 여지없이 태양이 서서히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밀었다. 사람들 손이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아름다운 자태를 나도 한 컷 찍고 새해 놓쳤던 소망을 늦게나마 빌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상념에 빠져 있던 그때, 내가 속한 교대조의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떴다. 근처에 살고 있는 후배 사우가 올린 것이다. 놀랍게도 내가 본 그 일출 장면이었다. 후배는 메시지 창을 통해 '아침 4시경에 집을 나서 임랑해수욕장에서 해 뜨는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다'고 알렸다. 나도 곧 진하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후배는 깜짝 놀라며 '중간지점에서 접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5시간 가까이 걸어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반가움에 힘입어 간절곳 방향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하필 가는 도중 휴대폰이 방전돼 난감했다. 일단 서생 방향으로 바닷가를 따라 계속 전진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회사에서 매일 보는 사이인데 그 순간만큼은 수십 년 만에





북캉스로 만난 지혜의 숲

책과 함께 집중휴가

글: 권범진(품질관리팀)

집중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면 동료들이 긴 휴가 기간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묻는다. 작년에는 설악산 공룡농선 종주를, 작작년에는 아내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거리가 있었다. 올해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도 소소하지만 기억될 만한 일은 만들었다. 독서다.

오랫동안 책과 담 쌓고 살다시피 했는데 약 2년 전부터 독서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 독서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월정액 전자책 구독도 하고 있다. 이번 집중휴가 동안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독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권씩 7권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초과 달성해 10권을 읽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으로 그 책들을 짧게 공유하려 한다. 보다 훌륭한 서평은 온라인 서점을 참고하라 일러두고 싶다. 사보를 통해서서는 주관적인 감상만을 전한다. 대부분 올해 신간이고 자의적으로 부여한 별점(★)은 5개 만점 기준이다. 🌻



♣ 내 마음의 서재 ♣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읽으면
나도 모르게 위로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전개는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어
곱씹어 읽어야 한다. 성과만을 좇는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아몬드>

★★★★★

지난 9월 베스트셀러 소설부문 1위다.
불우한 두 청소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장해 나가는 내용이다. 나이를
떠나 인간은 계속 성장 중이고 또
성장해야 함을 깨닫는다. 잔인한
장면이 몇 군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442시간의 법칙>

★★★★★

제목부터가 전형적인 자기계발서다.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로
삼았다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얘기가 많이 등장한다. 442시간은
42/7=6 즉, 하루에 6시간씩 쪼개어
회사·잡·잠·자기계발의 네 가지에
할당하라는 뜻이다. 실천은 어렵지만
가끔 이런 책이 필요하다.

<기억1·2>

★★★★★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최신작이다. 최면을 통해 전생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의 능력을 내 몸에 장착해 현재의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는 내용이다.
생생한 묘사력이 빛난다.

<설민석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

동명의 TV 프로그램을 한동안 재밌게
시청했다. 고전 등 유명한 책을
소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 책은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책 중 5권을 추린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페스트>·알베르 카뮈,
<한중록>·혜경궁 홍씨,
<노동의 종말>·제러미 리프킨이다.
어려운 고전도 쉽게 풀었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한국인인 척했다>

★★★★

대략 이런 내용이다. '유언장에는
자필로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유효하다', '대인배는
소인배의 상대어 개념일 뿐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현재 경주
인구는 25만 명인데 통일신라시대 때는
100만 명이 넘었다' 등 가볍게 볼만한
상식 책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

유대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작가는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라 권하지만
솔직히 지금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닌
격려인 듯하다.

<눈맞춤 육아법>

★★★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행동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눈높이를 매우 낮추라고 전한다. 우리
집 애들은 다 컸는데 왜 육아책을 읽게
됐는지 아이러니하지만 유아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에 권한다.

<항구마을식당>

★★

항구 도시 기행문 또는 식도락 여행기
정도로 보면 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리 만족을
위해 보기 시작했다. 여섯 군데 항구
도시에는 부산도 포함돼 있지만 일본
지명과 항구 마을이 중심이다.





함께하는 풍경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의 시간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눈앞의 미래

초대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파주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 오픈

글. 이용현(브랜드마케팅팀)



주유소의 새 지평

예측 불가능한 전망들로 한층 혹독한 경쟁이 이어지는 국내영업 상황 속에서 우리 회사가 초대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을 열어 새로운 활력을 다지고 있다. 다채로운 기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파주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다.

9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는 세련된 외관과 압도적인 규모로 눈부터 즐겁게 한다. 초대형 주유소·충전소로

서 3천여 평 부지에 조성된 전체 시설은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맞춰 기존 4개의 주유소·충전소를 리모델링한 결과다. 아울러 새로운 디자인(New Signage)을 적용해 유동 차량이 많은 동선 위에서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다. 친환경 재활용 자재를 비롯한 LED 조명과 노란색·녹색이 조화롭고 시원스런 정경을 펼쳐 보이며 우리 주유소·충전소의 이미지를 또렷하게 각인시킨다.





확장된 서비스 인프라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는 서비스 운영 개시와 함께 고객들에게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현장에는 대형 편의점(세븐일레븐)과 터널식 자동세차기(2대)를 갖춰 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편의점 2층에 마련된 카페테리아는 초대형 규모 설비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공간이다. 화물차 고객과 세차를 위해 대기하는 고객이 공릉천을 조망하며 여유롭게 설 수 있다.

무엇보다 주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셀프주유기 10대와 LPG 충전기 4대를 갖춰 차량 30여 대의 주유·충전이 동시에 가능하다. 동두천·파주 시내에서 문발IC·일산방향 운정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해 고객들은 충전소-주유소-부대서비스 순의 동선을 따라가며 최적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운정드림 주유소·충전소는 미래형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해나갈 새로운 모습에 더 큰 기대를 가질 만하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 소비자 요구와 미래 시장 경향을 반영한 차별화한 부대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관리에 민감한 고객을 고려한 손 세차 서비스, 화물차 고객 수요에 부응할 대형 세차기, 차량 관련한 자체 상표(PB) 상품 등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튜닝 특화 정비점, 전기차 충전시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주유·세차·배달 등 새 고객가치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재능 쑥쑥 힘찬 응원



군산저유소 특성화고교생 자립 지원

글. 최진홍(군산저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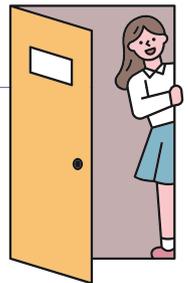


군산저유소가 지역 청소년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9월 3일 군산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을 통해 특성화고교생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기탁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지원금은 지역 내 특성화고교에서 공부하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보탬이 될 예정이다. 군산저유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저소득가정 난방유 지원에 이은 청소년 지원은 지역 구성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한층 의미 있는 활동이다. 경제적 어려움

에 처한 꿈나무들이 저마다 잠재한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어엿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나눔은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투명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저소득 가정 특성화고교생들은 제과제빵, 헤어미용, 바리스타 등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설 준비를 한다.

군산시는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회사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민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적극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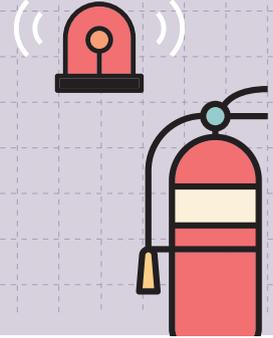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우리 회사는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군산저유소는 나눔의 핵심가치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진정성 있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뜻모아 지역 안전

인천저유소 주택용소방시설 기증

글. 이영미(인천저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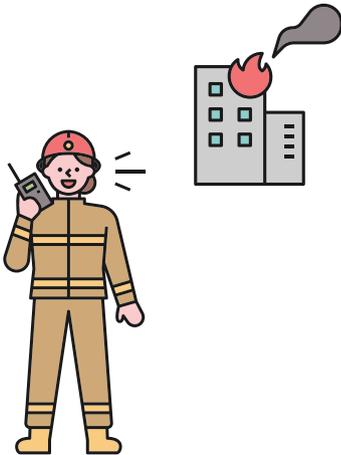
화재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는 계절에 인천 저유소가 지역사회를 위한 주택용소방시설을 기증했다. 기증식은 9월 17일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진행됐다.

이번 나눔은 인천중부소방서(인천시 중구 인종로)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다. 화재 위험에 취약한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민간기업으로서 우리회사가 기증한 물품은 주택용 소화기·화재 감지기 각 200개다. 이들 설비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 지역의 화재 취약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예정이다.

소방청 보도자료(2020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택 화재 비율은 18% 수준이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48%에 이르는 인원이 주택 화재에서 비롯됐다. 또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해외의 사례의 경우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 이웃의 해당 설비 구축 수준은 저조한 상황이다. 소방청은 2017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의무설치가 시행됐지만 아직 전국 설치율이 56%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 80% 이상을 목표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저유소는 사업장이 자리 잡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마저 드문 상황이지만 인천저유소는 우리회사가 추진하는 건실한 사업 활동과 아울러 지역사회와 견강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



눈맞춤 온정

사랑의 송편 나누기



우리회사가 9월 23일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눔'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가정에 추석 선물꾸러미를 제공했다.



본사 사옥이 위치한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900세대에 송편, 즉석밥 등 식료품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 생필품을 담은 추석 선물이 전달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추석은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뜻깊은 명절”이라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회사는 2007년부터 14년째 지속적으로 설날에 떡국 나눔, 추석에 송편 나누기를 지속하면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배움 길 귀한 동행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형보조기구 전달

굳은 의지로 배움의 길을 걷는 장애청소년을 위해 우리회사가 묵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우리회사는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형보조기구 전달식을 통해 총 43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전달식은 9월 17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수혜 학생과 가족 참석 없이 조영일 수석부사장과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히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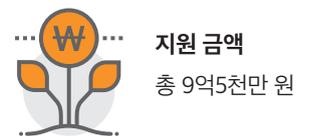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자세 보조 의자, 독서 확대기 등이다. 사용할 학생들의 장애 유형을 하나하나 고려한 맞춤형 제작 기구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조공학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추천 받았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재활공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

우리회사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손잡고 학습용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저소득가정 장애 학생들이 학업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뜻있는 지원이다.

우리회사는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1년 동안 학습용 맞춤형보조기구를 전달 받은 장애청소년은 총 607명이다. 특수 제작된 보조기구로 학생들은 실질적인 학습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마련을 향한 목표에도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



후원 현황(2010~2019년)



역경 이기는 소통

CEO·울산공장 팀리더 간담회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울산공장 팀리더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9월 22일 신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알 카타니 CEO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시설 현장, 조정실 등 방문을 통해 평소 직원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알 카타니 CEO는 핵심 중간 관리자인 팀리더들과 한층 밀도 높은 소통 기회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알 카타니 CEO와 박봉수 사장을 비롯해 팀리더 46명이 참가했다.

간담회는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알 카타니 CEO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편안하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특히 깊이 있는 대화로 팀리더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알 카타니 CEO는 모두 발언에서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회사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직원 각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최고 성

과를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Safety Talk’ 세션도 진행됐다. 공정 지역에서 휴대폰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면서 배터리가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작업 중 휴대폰 조작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환기했다.

알 카타니 CEO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가 달성한 우수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직원들을 치하했다. 전사 핵심성과지표(KPI), 안전·보건·환경(SHE) 체계 등을 통해 표출된 성과들이 모두 각고로 헌신한 임직원으로부터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뒤이어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 샤힌(Shaheen) 프로젝트 등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사업 관련 계획과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이 저마다 역량과 리더십을 개발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진과 팀리더들이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중간 관리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유생산본부·화학생산본부·생산지원본부·안전환경부문·공강혁신조정부문에 걸쳐 소속된 팀리더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직원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비롯해 정비 업무상 애로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관리 체계 등 질의에 대해 알 카타니 CEO는 가감 없는 의견과 현황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시간 제약으로 더 많은 대화를 잊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생각과 경영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NEWS

지식플러스 내 'Safety Talk' 게시판 운영

전사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하는 Safety Talk가 안전문화의 일부로 정착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포털(CP) 내 지식플러스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구축됐다. 우리회사는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요 회의 시작에 앞서 Safety Talk 세션을 두어 안전의식 제고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시행이 거듭될수록 양질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안전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식 공유 채널로서 지식플러스 활용이 제안됐다. 특

히 우리회사가 지닌 특수성과 공정 운영 경험에 기반해 다양하고 순도 높은 안전 관련 주제 자료가 도출된 상태다. 향후 Safety Talk를 발표한 조직은 일련의 매뉴얼에 따라 지식플러스에 직접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조직이 등록된 내용은 임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울산복지재단 추석맞이 백미 기탁

큰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울산복지재단이 어려운 지역 이웃을 위해 백미 1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9월 23일 울산시청에서 박봉수 시장과 송현철 울산시장, 한시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한 쌀은 지역 농가에서 구매한 친환경 백미로 1천715포(20kg 들이다). 우리회사는 울산복지재단을 통해 2001년부터 지

금까지 79억 원 상당을 울산 지역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기관에 후원했다. 아울러 동절기 저소득 세대를 위한 난방유 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을 통한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OCTOBER 2020

【 팀리더 임명 】

9.17

이효석(2급.제품운영1팀 송유공정파트리더)→제품운영1팀리더(대행)

【 보직변경 】

9.15

손진혁(계장.생산회계팀)→인사후생팀

최상희(계장.생산회계팀)→기술교육팀

윤승용(계장.생산회계팀)→

생산구매지원팀

9.16

지선미(일반사무직1급.광주지사 관리담당)→대전지사(관리담당)

김래연(일반사무직2급.인사팀)→ 복리후생팀

9.17

조영진(1급.제품운영1팀리더)→ 동북운영팀리더

강성훈(계장.제품운영1팀)→ 동북운영팀 주간과장

【 관계사 파견 복귀 】

9.17

이희섭(1급.동북화학 파견-휴직)→ 인사후생팀

【 정년퇴직 】

9.30

김영수(1급.정유생산본부)

김하선(1급.생산회계팀)

【 퇴직 】

10.7

이유진(4급.PP영업팀)

10.6

차시현(운전원.올레핀송유/동력팀)

10.8

한인우(운전원.탈황3팀)

【 동북화학 인력 입사 】

9.17

박원호(계장.화학생산본부 Safety Group Safety Foreman 대행)

이윤섭·이의훈·최현진·박병섭(주임.동북운영팀 교대과장 대행)

윤종원·이경호·박정욱·강명균·김형규·김정민·황성일·손원익·이정현·김한진·조왕제(운전원.동북운영팀)

박민희(일반사무직3급.동북운영팀)

남기익(2급.총무보안팀)

임은목(주임.총무보안팀)

김명훈(3급.안전대응팀)

김성현(3급.투자공사팀)

이진욱(5급.자재관리팀)

손서진(일반사무직2급.인사후생팀 부)

【 결혼 】

9.19 이동현(동력팀) 딸

류영열(아로마틱2팀)

9.20 김민중(탈황3팀)

윤종열(정유3팀)

강영훈(탈황3팀)

이찬희(올레핀팀)

9.26 양정우(자재관리팀)

10.8 주기범(자재관리팀) 딸

10.10 김수근(제품출하팀) 딸

김상국(동력팀)

황성일(동북운영팀)

이기현(인천저유소)

10.17 김지환(품질관리팀)

김대연(정유1팀) 아들

김성원(정유2팀)

10.18 전우동(기유마케팅팀)

【 부음 】

9.7 이재명(정비계획팀) 조부

정정태(계기2팀) 빙부

허인(Akylation1팀) 빙부

9.8 이병석(생산회계팀) 모친

9.10 이설호(에너지관리팀) 조모

9.11 이규진(원유용선팀) 조모

9.12 한혁수(노사협력팀 부-공장) 빙모

9.13 강현호(MHC팀) 외조모

이정일(브랜드마케팅팀) 빙부

9.16 김범준(PX1팀) 조모

9.22 이훈남(남양주지사) 모친

9.24 전동훈(프로젝트기계기술팀) 빙부

9.25 임동연(홍보팀) 빙부

9.26 최홍근(계전설계팀) 빙부

황영태(탈황3팀) 빙부

9.29 고병석(정유2팀) 외조모

10.1 김도형(판매기획팀) 부친

정주영(안전대응팀) 모친

10.3 이재형(정유2팀) 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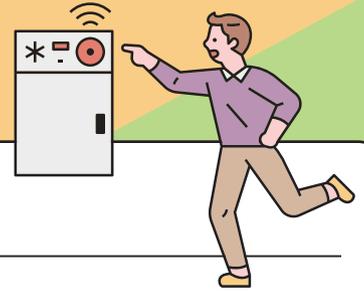
박양식(구매관리팀) 빙모

10.5 신현철(정유2팀) 모친

10.8 안장호(화학생산본부) 빙모

작은 실천이 큰 화재 물리쳐요!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



예방

난방기구 주변 정리

- ▶ 전열기기 사용 뒤 전원 끄거나 콘센트 뽑아 두기
- ▶ 주변에 가연성 물체 없는 편평한 바닥에 난방기구 놓기

콘센트 관리

- ▶ 과열과 과부하 위험이 큰 문어발식 배선 대신 개별 콘센트 사용
- ▶ 콘센트 먼지 제거

차량 점검

- ▶ 차량 부품 노화·배선 상태·냉각수 부족 여부 확인
- ▶ 셀프주유 시 정전기 방지 패드 반드시 터치
- ▶ 차량 적정 온도인 21~23℃ 유지해 엔진 과열 방지

대응

비상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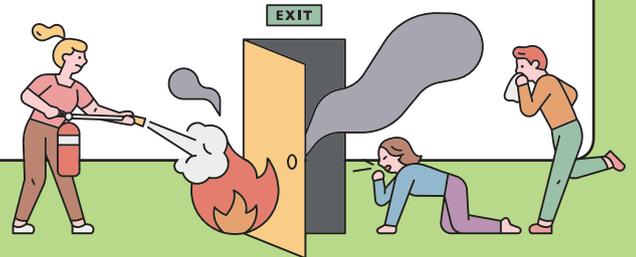
- ▶ 비상구 위치 파악해 상시 개방
- ▶ 주변에 물건 적재 등 통로 막지 않기

소화기 사용

- ▶ 손잡이 부분 안전핀 뽑은 뒤 바람 등지고 서서 사용
- ▶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리기

차량내 소화기 비치

- ▶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차량용 소화기 구비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윤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 #각종 체험기·관람기
-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 #동호회 활동기
-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공감동화> 최고 - 아기돼지 삼형제
성실한 과정을 밟으며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진대중(탈황2팀)



<읽고 듣는 오페라> 라크메 - 꽃의 이중창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경험하기 어려워진 문화 콘텐츠를 접했습니다.
이재성(아로마틱2팀)



<생활의 발견> 프로필렌옥사이드와 화장품
우리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화장품 관련한 소재 정보가 흥미로웠습니다.
이수연(대외업무팀)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안전한 산행 수칙은?

①

배낭무게는 체중의 30% 이내로



②

출발할 때 옷차림은 두툼하게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두 가지 모음을 보고 해당될 수 있는 두 글자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ㄴ ㅡ	고을,
ㅌ ㅊ	구경,
ㅌ ㅊ	가열,
ㅌ ㅌ	반사,
ㅣ ㅌ	기구,
ㅌ ㅊ	국화,
ㅌ ㅣ	장기,
ㅌ ㅌ	언어,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터벅터벅 소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
국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백승훈(공정혁신팀)



<두런두런 이야기방>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
언젠가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으로 자전거를
배워야겠습니다.
이서운(Alkylation2팀 이정관 사우 가족)



<팝업 정보창>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좋았습니다.
허인(자재관리팀 허상만 사우 가족)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가을철 올바른 성묘길
안전 수칙은?

→ 정답.

②

뱀에 팔 물리면
시계와 반지 즉각 제거



뱀에 팔을 물리면
주변이 부어오를 수 있으므로
손과 팔에 있는 장신구는
모두 제거한다. 가을철
야외에서는 말벌에 쏘이지
않도록 가급적 흰색 계열의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아래 그림처럼 바로 놓은 단어를 회전시킨 것처럼
거꾸로 써보시오.

신문 → 곰규

글자를 뒤집어 오른쪽에 써보세요.

봄	뭍
여름	믄0
가을	릉ㄷ
겨울	릉ㄷ
우리나라	러기러그
사계절	륄ㄷㄱ
아름다운	공ㄷ믄0
금수강산	규은수문

블루투스 스피커

신다일(정유2팀)
한예란(탈황2팀 한도훈 사우 가족)
맹승희(아로마틱2팀 강학현 사우 가족)
이철형(원주지사)

휴대폰 보조배터리

안정오(Hydrocracker팀)
신수영(탈황3팀 신갈재 사우 가족)
조준영(브랜드마케팅팀)
박시우(LPG팀 박찬필 사우 가족)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